

최신의학상식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윤리

임 숙 빈 / 을지의과대학교 간호대학

1. 서론

지난 해 부터 올해에 걸쳐 대한민국은 연구와 관련해 세계를 거머쥐는 듯 한 흥분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충격적 우울함에 휘둘리며 지독한 멀미를 했다. 어린 아이들 조차 사이언스 잡지가 어찌니 저찌니 하고 인간배아복제, 냉동 난자, 줄기세포 등등 온 국민이 마치 생명공학도나 연구원들처럼 어려운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며 열을 토했다. 난치병을 앓는 많은 환자나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적 같은 회복을 꿈꾸었던가. 하지만 어느 새 세계의 중심을 공략하는 프로 야구에 온전히 감동하며 줄기세포件은 생각도 나지 않는 얼굴들이다. 참으로 다이내믹 코리아, 역동 코리아이다. 그래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참에 책임 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에 대한 각성만큼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야만 온 국민이 치룬 이 낭패감과 위기감을 낭비하지 않고 또 다른 성장으로 이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간간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연구부정사건은 적지 않은데 특히 최근 들어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시비가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필자 역시 몇 년 전 박사논문을 도용당하고 아연실색했던 적이 있다. 법적 대응 의지를 해당 학교로 통고한 결과 그 학생의 학위 취소, 학적의 영구제적, 지도교수에 대한 엄중 경고, 배포된 논문의 전면 회수로 일단락 지었지만 참으로 씁쓸한 경험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행동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연구 윤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2006)이 서둘러 내놓은 '연구 윤리 소개'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대형 연구부정사건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74년 미국 윌리엄 서머린 사건, 1981년 미국 존 다시 사건, 1990년 독일 헤르만-브라흐 사건, 1995년 영국 말콤 피어스 사건 등 생명의학 분야에서 논문을 위조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부터 각 국가들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미국은 1992년에 연구 윤리국(ORI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을 설치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장려하고, 부정행위의 빈도와 발생원인, 예방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독일도 1997년에 기초 연구기관을 관할하는 막스플랑크연구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지침을 지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다. 영국도 1997년 부정행위를 토론하기 위해 논문발표윤리위원회를 조직하여 '훌륭한 논문 발표 실천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연구 윤리 문제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주제이다.

국내 모든 대학과 학술단체가 공통으로 지켜야 할 지침을 정부가 학계와 함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2006년 말까지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외 대학과 학술단체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1) 책임 있는 연구 행위

사실 연구자들은 자기 영역의 전문가로서 책임지고 좋은 연구를 수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정확한 절차를 밟아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정직하고 명확하게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연구 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명확한 지침은 없으며 전문 학계에서 제시하는 지침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들 있다. 그러나 간호계에 합의된 연구 윤리지침은 아직 없다. 몇 년 전 간호협회 주최로 논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세미나가 열렸던 기억이 난다. 필자도 참여하여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곧 간호계 나름의 규칙이나 지침이 생겨날 듯 한 분위기였건만 협회장이 바뀌도록 간호학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들은 정보는 없다.

간호학회에서도 어느 학회에 가니까 “외국의 누가 와서 이러 이러한 것은 중복 게재라 하더라.” 하는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간호계에서도 연구 윤리 문제는 대오각성을 필요로 하는 때라고 하겠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책임 있는 연구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은 시점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들이 연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가를 아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과학기술정책국(OST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의 계획, 수행, 혹은 심사 또는 연구 결과 보고에 있어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있지 않은 데이터, 결과, 기록, 보고를 제출하는 위조(fabrication), 연구 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변조(falsification),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혹은 표현을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표절(plagiarism)을 부정행위로 들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물론 이런 행위 이외의 것은 관찮다는 말은 아니지만 연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이기에 특히 거론하는 것이리라.

학문은 정직해야 한다. 그런데 왜 없는 데이터를 만들고, 바꾸며, 다른 사람의 지적 성과를 몰래 쓰는가? 첫째, 욕심일 것이다. 능력은 못 미치면서 내가 최초가 되겠다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남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하겠다는 과욕이다. 둘째, 게으름이다. 쉽게 살고, 단 시간에 이루려 하며,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는 양심 없는 태도이다. 셋째, 요행심이다. 설마 이 일이 발각될까, 누가 알까 하는 얇은 마음이다. 넷째, 무식함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공유하며,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런데 부정행위 중 위조나 변조는 연구의 진실성을 왜곡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저지르기 어려우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못 박을 수 있다. 그러나 표절은 자신도 모르는 채 저지를 수도 있는 행위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연구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어진다. 내 것이던 남의 것이던 주제와 관련되는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관심사를 검증하게 된다. 그러니 선행 연구의 학문적 조망, 연구 방법, 연구 결과를 보완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인용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면 얼마든지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학문적 조망 혹은 연구 방법이나 결과가 많이 인용되고 유용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선행 연구자에게도 더없이 기쁜 일이다.

하지만 그 동안 연구를 가르치거나 배우면서 ‘합리적인 인용 혹은 표절 방지’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는가? 인용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얼마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용했음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잘 아는가? 연구 성과에 대한 과욕, 게으름이나 요행심에 따르는 부정행위는 개인적 책임으로 넘기더라도 ‘무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윤리에 대한 인식 교육을 통해 가능한 감소시켜야 하겠다.

3) 산업 간호사가 알아야 할 연구 윤리

산업 간호 영역에서 간호사들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Do Five」와 하지 않아야 할 부정행위, 「Don't Five」를 그 내용의 비중에 관계없이 요약,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Do Five」

-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인간에게 유용한 연구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피실험자가 연구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시작 전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역할과 참여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연구 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각 연구자의 역할, 자료수집 및 공유, 발표 초안의 작성 책임자, 중요도에 따른 공동 저자의 순위, 보고서 제출 책임자, 지적 재산권이나 소유권의 해결 방식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한다.
- (3) 교신저자나 책임 저자는 데이터의 정확성,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학회지 게재와 관련된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을 책임진다.
- (4) 실험은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는데 이득이 없는 위험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 (5) 데이터 수집의 승인, 소유, 보관, 공유에 따르는 사전 합의를 이루도록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다.

「Don't Five」

- (1)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즉 없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자료를 생략, 변경 조작하여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다.
- (2)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혹은 표현을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는다.
- (3) 처음의 연구 발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같은 정보를 다시 발표하는 중복 논문 게재를 하지 않는다.
- (4) 연구 활동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아 논문의 저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저자로 등재하지 않는다.
- (5) 단순히 논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작은 여러 개의 논문으로 나누지 않는다. 흔히 큰 연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살라미 논문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발표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의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한 학문 발전의

바탕이 되는 정직을 되새겨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얽매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왜 그랬는지 연구의 가정에서부터,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잘 검토 논의된 논문이라면 후속 연구자들에게 더 할 수 없이 귀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력한 만큼 얻은 결과를 기꺼워할 줄 아는 당당함으로 인간과 사회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른 연구 자세를 가꾸어 나가자.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2006). 연구 윤리 소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학술진흥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혁신평가실 학술정책담당관실.
이은옥, 임난영, 박성애, 박현애(1993). 간호학연구방법론입문.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학문의 바탕은 정직이다(2002, 9. 26). 간협신보, p.6.

